

새로운 교육체제가 필요한 경영정보학 교육

전 성 현

국민대 정보관리학과 교수



1. 머리말

국내에 경영정보학이란 분야가 소개된 지 10여 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경영정보학 분야가 이룩한 발전은 매우 눈부시다 할 수 있다. 많은 대학에서 경영정보학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매년 상당수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며, 학문적 측면에서도 국내외에서 경영정보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수가 기백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경영과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학술활동 역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족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경영정보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다소는 생소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부족은 실제 경영정보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이 글은 경영정보학 교육의 현황 및 제반 문제점을 소개하며 그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경영정보학에 대한 대학사회의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논의가 지나치게 학술적 전문적이 되는 것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논의의 초점을 주로 학부차원의 교육에 맞추었음을 미리 밝혀 둔다.

2. 경영정보학 교육의 현황

경영정보학 교육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국내 경영정보학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국내에서 경영학과와는 별도로 경영정보학 관련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약 30여 개교에 이르고 있다. 이들 학과들은 1984년 설치된 국민대의 정보관리학과와 한국외대의 경영정보학과를 필두로 모두 설치 10

년 미만의 신생학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학과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영정보학과 외에 정보관리학과(국민대, 동국대), 정보처리학과(세종대), 경영정보공학과(과기원) 등의 명칭 역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칭의 차이는 물론 각 프로그램이 가지는 미묘한 차이들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내용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명칭을 달리하는 많은 학과들의 공식적 영문표기가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상기 학과들의 계열구분은 경영계열이 단연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개중에는 공학이나 이학계열로 구분된 학과가 없지는 않으나 이러한 학과들은 경영정보학의 원류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의 경영정보학을 다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학원 과정의 교육상황은 학부만큼 활발하지는 않다. 우선 학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라 할지라도 일반대학원 경영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대부분의 학과가 위에서 지적했듯 설치 10년 미만의 신생학과라는 점에서 일단 설명이 가능하다. 반면 비록 학과로 독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대학의 일반대학원 경영계열학과가 경영정보학을 일반대학원 석·박사 전공의 하나로 개설해두고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의 경영정보학 교육은 오히려 특수대학원 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많은 대학이 경영정보대학원(외대), 정보과학대학원(국민대, 숭실대), 산업정보대학원(경희대) 등의 명칭 아래 전문야간과정(한국외대의 경우는 주간)을 설치하

고 그 과정의 한 구성분야로서 경영정보학을 강의하고 있다.

경영정보학 교육현황은 교수인력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경영정보학 분야는 극심한 교수요원 부족에 시달려 왔다고 할 수 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경영정보학 관련 학위를 배출하는 학교는 고려대, 과기원 등의 몇몇 대학에 지나지 않았고 또 외국학위 소지자들의 유입도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공급부족에 반해 경영정보학 교수요원에 대한 수요는 당시 경영정보 관련학과의 신설 바람과 맞물려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 결과 국내 경영정보학계는 심각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허덕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외국으로부터의 경영정보 전공자들의 유입이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들어 급속히 늘어나면서, 또 국내 대학의 경영정보 학위 배출이 꾸준히 늘어 나면서, 이러한 수요-공급 간의 불균형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국내 경영정보학의 교육현황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국내의 경영정보학 교육은 외국에 비해 보다 학부중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 경영정보학이 학부의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James Madison 등의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대학은 MBA 과정에 가서야 경영정보학 전공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학부중심적 성격은 교육의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경영정보학 교육은 외국에 비해 고도로 이론적이며 포괄적이다. 국내 대학들의 커리큘럼을 훑어보면 가장 첨단인 인공지능이나 통신기술 이론에서부터 고전적 사회 및 조직이론에 이르기까지 다루어지는 분야와 주제의 다양성이 가히 놀랄

만하다. 그 이유는 첫째, 경영정보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영정보학이 무엇인가를 장황하게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허락치 않지만 알다시피 경영정보학은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전산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가 접목되어 이루어 내는 학제적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섭렵이 학문의 성격상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국내 경영정보학 교육이 이론적으로 흐르는 또 다른 이유는 매우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국내 학부 커리큘럼이 채워야 하는 이수학점(대개 140학점)을 채우는 과정에서 많은 교과목의 개발이 요구되고, 그러한 요구가 보다 고도의 이론적 과목의 개설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국내 대학들의 커리큘럼에는 세계 어느 학부과정에서도 개설되지 않는 매우 전문적 각론 과목들(예: MIS와 기업전략, CIM과 경영정보 등)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학부 수준에서 이러한 고도로 이론화된 커리큘럼을 소화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

학부과정의 경영정보학 교육이 외국에 비해 고도로 이론적인 반면, 대학원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실무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경영정보학 교육이 일반대학원보다는 특수대학원에서 더욱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교육의 연결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바람직하기로는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올라갈수록 교육내용이 보다 이론화, 체계화 되어야 하나 국내의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학부의 교육내용에 비해 대학원의 교육내용이 오히려 부실하다는 말이다. 이는 학부에서 잘 훈련된 학생이 마땅히 진학

할 대학원 프로그램의 선택이 여의치 않다는 말도 되며, 결국 현재의 경영정보학 교육의 수준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고도 볼 수 있다.

3. 학사 운영의 문제

경영정보학 학사과정을 운영할 때 당면하는 첫번째 문제는 취업 및 진로지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정보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아직 확고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졸업생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전공을 부각시키고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취업시 학생들이 느끼는 고충 중의 하나로 소위 전공코드라는 것이 있다. 전공코드란 입사를 위한 원서작성에서 각 전공별로 부여된 코드로서, 경영정보학의 경우는 해당되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기타'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생들의 불만이다. 물론 최근 들어 경영정보학 코드를 개설한 기업의 수가 늘고 있고 또 채용시 이에 전공을 묻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러한 불만은 상당부분 수그러들긴 했지만, 자기의 전공이 사회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학생들을 대하면서 당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취업 면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또 다른 고민은 타전공자와의 비교우위가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경영정보학이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경영정보학 전공자들은 결국 취업시 보다 기술적 소양이 강한 학생들은 기업체의 전산 기술요원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일반 사무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학생들의 경쟁상대는 전산학 전공자와 경영학 전공자가 되는데, 이들 두 분야에 대해 경

영정보학 전공자들은 일종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즉, 경영정보학 교육의 정도가 전산 분야에서는 전산학 전공자들에게, 경영일반에서는 경영학 전공자들에게 뒤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들이 느끼는 고통은 소위 학제적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가져게 되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으며, 교수의 입장에서 오히려 경영정보학의 강점은 그 두 이질적 분야를 적절하게 접목시키는 데 있는 것임을 강조하나, 이러한 주장은 취업이란 냉엄한 현실을 앞에 둔 학생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학사운영에서 취업 및 진로지도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대학 4년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이는 취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야의 성격 자체가 학제적 분야라는 점에서, 더군다나 그러한 학제적 분야의 교육이 학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서, 현재 많은 학생들이 경영정보학을 공부하는 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예로 많은 경영정보학과 학생들은 경영계열 학과를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회과학도로서의 소양이 많고 따라서 사회과학도로서의 대학 교육을 기대하며 대학생활을 시작하나, 실제 다루는 주제의 기술지향적 성격에 매우 당혹해한다. 반면 기술적 소양이 강한 학생의 경우는 정반대의 이유로 마찬가지로 경험을 하게 된다. 즉, 학생의 입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취미도 적성도 없는 사회과학적 주제를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는 상당수의 학생으로 하여금 전공 자체에 대한 열의를 상실하게 하고, 그 결과 아예 전공을 포기하거나 일반 취업시험 준비나 기타 자격증 시험 준비에 귀중한 대학생활을 바치는 우를 범하게 하기도

한다.

끝으로 학사운영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역시 경영정보학 교육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학생들이 경영정보학 교육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경영정보학 교육의 성과를 운위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학문의 성격상 다양한 주제의 창조적 종합이 요구되나, 학부차원에서 이러한 종합의 능력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종합은커녕 개별주제의 소화에도 급급한 상태이고, 그 결과 대학 4년의 교육이 전혀 연결, 종합되지 않은 중구난방식 단편적 지식의 축적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문제는 경영정보학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많은 다른 학문분야의 교육에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경영정보학과 같은 첨단 학제적 분야의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성과를 저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문제의식의 결여다. 경영정보학 교육의 상당부분은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실무적 문제들이 다년간의 현장경험이 없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학부학생들에게서 이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자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 외국에서 경영정보학을 대학원 과정에 가서야 개설하는 이유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결여는 결국 경영정보학 교육을 매우 공허한 것으로 만들고 만다. 즉, 경영정보학을 실제 경험해 보지 않은 문제에 대한 더 이해하기 어려운 해결방안에의 논의로 전락시키고 만다.

경영정보학 학사운영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교육의 성과를 들었지만, 이러한 성과를 저

해하는 요인은 단순히 학생의 지적 수준의 미달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성과를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는 교육내용의 활용성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설사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과연 학생들이 대학 4년간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경영정보학 교육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관리자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자적 시각은 물론 효과적 관리자로 기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대학을 갓 졸업한 경영정보학 전공자들의 입장에서 취업과 함께 당장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각이다. 그 결과는 또 다른 이상과 현실의 괴리이다. 즉, 대학 4년간 끊임없이 주입받은 지식과 관점을 활용할 기회가 학생들이 관리자의 지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대학교육의 목적이 지식, 기술의 실제적 활용에만 있는 것은 아니나, 결국 많은 경우 대학 4년의 교육의 결과가 취업과 동시에 사장되고 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술교육의 활용성에서도 문제가 없는 바가 아니다. 대학 4년 동안 학생들이 받은 정보기술 교육이 당장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느냐 했을 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정보기술 분야가 워낙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또 기업이 사용하는 정보기술의 수준이나 그에 대한 기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그러한 수준이나 기대들을 완전하게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4.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이상으로 국내 경영정보학 교육의 현황과 문

제점을 주로 학부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에 입각해서 본 절에서는 경영정보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단, 이 제언들은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이나 단체의 견해는 결코 아니며 어디까지나 필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경영정보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첫번째 제언은 경영정보학에 대한 인식 제고이다. 대학사회는 대학사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경영정보학의 존재와 성격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교육부 및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역할이다. 우선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영정보학이 정보기술의 관리와 활용이라는 독자적 탐구의 영역을 가진 경영학의 한 분야로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분야가 정착하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작게는 앞서 언급된 전공분류 코드의 정착을 위한 대기업 협조 요청에서부터 크게는 정보기술 관련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지원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띠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대교협이 95년의 경영계열 평가에 경영정보학을 포함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정부의 정보기술 관련 학문의 지원대상에서 경영정보학이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상공부, 과기처, 체신부 등 많은 정부 부처에서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막대한 재원을 기초 정보기술 개발에 다소는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초기술 개발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보기술의 관리와 기업경영 환경에서의 활용기술이며, 바로 이러한 관리 및 활용기술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분야로 경영정보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간과하고 있다. 솔직히 정보기술관련 부처의 공무원으로서 경영정보학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학교협은 이러한 인식 부재의 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사회의 경영정보학에 대한 인식 제고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경영정보학이 가지는 학제적 분야로서의 성격이 대학사회에서 전혀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학제적 분야란 것이 학문간 장벽을 뛰어넘는 공동의 문제인식과 해결노력이 전제되어야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의 실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다시 말해 경영정보학이란 것이 일차적으로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전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다양한 이론들을 창조적으로 교환하고 종합하는 지적 탐구의 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나, 실제 국내 대학사회에서의 경영정보학은 또 하나의 벽을 가진, 따라서 별개의 기득권과 영역을 고수해야 하는, 하나의 조직구조로 전락해버린 느낌이 없지 않다. 예로 경영정보학과가 설치됨으로써 경영학과와 사회학과와의 교류가 촉진되었다거나 또는 학문간 벽을 뛰어넘는 학제적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는 경우를 들은 바가 없다. 물론 이는 일차적으로 경영정보학 전공자들의 편협, 스스로의 역할 설정에 대한 이해와 노력 부족 등에서 기인된 것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대학사회가 어느 정도 폐쇄적이며 학문간 교류에 대해 미숙한지, 또 열의가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경영정보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두번째 제언은 대학원 교육의 활성화이다. 앞에서도 누차 지적하였듯이 국내 경영정보학 교육은 학부

중심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학부중심 체계는 지식 연결성 측면에서, 학문의 지속적 발전 측면에서, 교육의 활용성 및 사회적 인력 수급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정보학 교육의 초점이 상당 부분 대학원 교육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러한 초점의 이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대학원 교육여건의 확보이다. 불행히도 대부분 대학의 대학원 교육조건이란 것이 의욕적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 가지는 재원이나 설비 면에서 태부족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일반 사회의 입장에서 대학원 교육을 무턱대고 강조할 수도 없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이 필요재원을 학부과정의 운영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지적인 정부의 지원문제와 연결시켜 보면 결국 경영정보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정보 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말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물론 대학에서의 자구 노력도 당연히 요구된다. 경영정보학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특수대학원 교육을 보다 내실화하는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경영정보학 교육의 초점을 대학원 차원으로 옮기는 데 있어 또 다른 전제조건은 학부 교육체제의 변화이다. 사실 교육의 초점을 대학원으로 옮긴다는 것이 곧 학부의 경영정보학 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는 없고, 또 연결되어서도 안 된다. 실제 학부 경영정보학 전공에 대한 요구는 매년의 대입 지원상황을 보면 오히려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또 교육부의 대학정원 정책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몇 년간 경영정보학과와 신설과 증원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정보학 교육의 활성화에 요구되는 것은 학부교육의 포기가 아니라

학부교육의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부교육은 보다 실무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응용, 개발 위주의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응용, 개발 위주의 교육은 그러나 현재의 교육체제에서는 제대로 실시되기 어렵고 그러한 목적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교육체제를 필요로 한다.

응용, 개발 위주의 교육을 위한 교육체제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갖출 것이냐 했을 때 사실 대답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외 어디에서도 시도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그 교육체제의 모습의 일부를 현재의 조형, 예술대학들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보기술의 응용, 개발은 분석적 기계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어느 예술 분야에 못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 직관, 과감한 실험정신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정보시스템의 개발이란 건축가의 건물, 화가의 그림, 작곡가의 작곡 못지 않은 창조적 창작활동이며 경영정보 교육체제는 이러한 창작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의 경영정보학 교육체제는 지나치게 다기화 되어 있고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반면 현재의 전산과학은 지나치게 이론중심적이라는 점에서 어느 것도 이러한 창조적 활동을 지원, 교육하기에는 적합치 못하다. 따라서 경영학, 전산학, 경영정보학 그 모두를 포용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느 것도 아닌, 즉 학제적 분야이되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탄생이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의 구축은 기존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야 한다는 점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그 파급효과는 어느 것보다도 클 수 있다. Lotus사는 1-2-3란 창조적 제품 하나로 몇십 년에 걸쳐 수십억 불에 달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경영정보학 교육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 보았다. 이상의 논의가 결코 경영정보학 교육의 현황을 완벽하게 기술한 것도, 모든 문제점을 총망라한 것도 아니며, 또 개선방안을 비롯한 전체적 논의의 시각 역시 개인적 주관, 편견에 의해 매우 편향되어 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글이 실제 경영정보학 교육의 일선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기술하고 나눔으로써 경영정보학에 대한 대학사회, 기업, 정부의 이해를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

전성현/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네소타 주립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국민대 정보관리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 "기업경쟁우위분석 모형" 등이 있고, 역서로 『정보기술시대의 경영전략』 등이 있다.